



2011년 11월 말 국내은행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잠정) 발표

채원영 연구원

■ 2011년 11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일 이상 원금연체 기준)은 1.43%로 전월말(1.28%) 대비 0.15% 상승하였는데, 이는 2010년 8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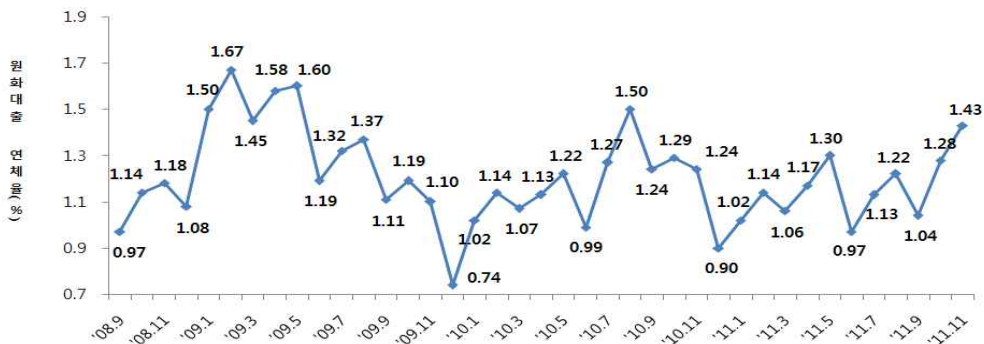
- 월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3.4조 원으로 전월 대비 0.5조 원 감소했으나 2011년 9월 1.8조 원에 비해 그 규모가 커진 상태이며 신규 연체는 주로 선박건조업, 부동산 PF대출 등에서 나타났음.
- 월중 연체채권 정리규모¹⁾는 1.6조 원으로 전월 대비 0.4조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분기 말 이후 연체채권 정리에 소극적인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1〉 부문별 신규연체 발생액

(단위: 조 원)

구분	기업대출		가계대출		합계
	대기업	중소기업	주택담보대출		
2011년 9월	1.3	0.1	0.5	0.2	1.8
2011년 10월	3.2	1.1	0.7	0.4	3.9
2011년 11월 ^P	2.7	0.8	0.7	0.4	3.4

〈그림 1〉 2008년 9월 이후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



1) (11. 8월)1.3조 원 → (9월)3.6조 원 → (10월)1.2조 원 → (11월)1.6조 원^P

■ 2011년 11월 말 현재 기업대출(원화) 연체율은 1.99%로 전월 말 1.73% 대비 0.26% 상승했음.

- 조선업, 건설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의 업황 부진과 분기 말 결산 이후 연체율이 상승하는 계절적 요인 등이 기업대출(원화) 연체율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음.
- 대기업대출(원화) 연체율은 1.93%로 전월 말 1.36% 대비 0.57% 상승했음.
- 중소기업대출(원화) 연체율은 2.00%로 전월 말 1.83% 대비 0.17% 상승하였으며 부동산 PF대출 제외 시 연체율도 1.49%로 전월 말 1.36% 대비 0.13% 상승했음.
- 업종별로는 금년 중 기업대출(원화) 연체율 상승을 주도했던 취약업종인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선박건조업 등의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 가계대출(원화) 연체율은 0.79%로 전월 말 0.75% 대비 0.04% 상승했음.

- 주택담보대출(원화) 연체율은 0.69%로 전월 말 0.66% 대비 0.03% 상승했음.
- 집단대출 연체율은 1.60%로 전월 말 1.48% 대비 0.12% 상승하였으나, 집단대출 제외 시 주택담보대출(원화)의 연체율은 0.39%로 전월 말 0.39%와 동일함.
-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²⁾은 0.98%로 전월 말 0.93% 대비 0.05% 상승했음.

〈표 2〉 국내은행 원화대출¹⁾ 부문별²⁾ 연체율 추이

(단위: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1월	12월	11월	12월	11월	12월	3월	6월	9월	10월	11월 ^o
기업대출	1.60	1.47	1.55	0.97	1.67	1.13	1.41	1.19	1.33	1.73	1.99
대기업	0.34	0.34	0.72	0.35	0.65	0.35	0.67	0.25	0.50	1.36	1.93
중소기업	1.87	1.70	1.72	1.09	1.91	1.30	1.59	1.43	1.56	1.83	2.00
가계대출	0.66	0.60	0.55	0.48	0.71	0.61	0.63	0.72	0.71	0.75	0.79
주택담보대출	0.48	0.47	0.40	0.33	0.59	0.52	0.51	0.67	0.63	0.66	0.69
(집단대출 ³⁾)	-	-	-	-	1.38	1.31	1.16	1.88	1.54	1.48	1.60
원화대출 계	1.18	1.08	1.10	0.74	1.24	0.90	1.06	0.97	1.04	1.28	1.43

주: 1)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임.

2) 1일 이상 원금 연체 기준임.

3) 해당월말 현재 집단대출잔액 100억 원 이상인 사업장 기준임.

■ 금융감독원은 조선업, 부동산PF대출 등 취약부문의 연체 발생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은행의 연체채권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금감원 보도자료 등, 1/5)

2) (11. 6월)0.83% → (9월)0.85% → (10월)0.93% → (11월)0.98%